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의 project 섹션에서는 'In the Landscape'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Sambuichi Architects의 Inujima Art Project, Kimmel Eshkolot Architects의 Davidson Center, Daoust Lestage, Williams Asselin Ackaoui, Option Aménagement의 Promenade Samuel-de Champlain, 그리고 Marc Rolinet & Associates의 The Chapel of the Deaconesses of Reuilly를 다루고 있다. Books 섹션에서는 'Two architects with staying power(저력을 가진 두 건축가)'라는 주제 아래 Álvaro Siza에 관한 책 2권과 Oscar Niemeyer에 관한 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축유형별 연구 섹션에서는 사립학교를 주제로 St. Matthew's Parish School, The Wheeler School, 그리고 Oslo International School에 대해 다루고 있다.

■ Books

Álvaro Siza: Modern Redux : Edited by Jorge Figueira, text by Alexandre Alves Costa and Hans Ibelings. Hatje Cantx Verlag, 2009

Álvaro Siza: The Function of Beauty : by Carlos Castanheira with Álvaro Siza and Nuno Higino. Phaidon, 2009

포르투갈의 위대한 건축가이자 근대주의자로서 Álvaro Siza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가 Pritzker 상을 받은 1992년에 그의 나이는 거의 60세였고 겨우 올해에서야 영국 왕립 건축 학회는 그에게 금메달을 수여했다.

저자로서 Hans Ibelings는 이 책에서 Siza의 작품이 본질적으로 포르투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명 건축가의 작품보다 다양한 나라에 지어지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식견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Álvaro Siza: Modern Redux'에 담겨 있다.

이 책은 Brazil의 Porte Alegre에 있는 강과 복잡한 도시의 도로 사이의 가파른 경사면에 지어진 Ibero Camargo Foundation Museum과 같은 압도적인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Siza의 가장 큰 대표작 12개를 전시하듯 보여주기 위해 카탈로그처럼 디자인되어 있다.

또 다른 책인 'Álvaro Siza: The Function of Beauty'는 그리고 'Álvaro Siza: Modern Redux'보다 9개가 많은 21개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미지와 그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10개의 프로젝트는 'Álvaro Siza: Modern Redux'에도 실려 있다.

Siza와 함께 수년 동안 작업해 온 건축가 Carlos Castanheira의 관대한 평가와 함께 Siza의 글이 담겨 있는 이 책은 Siza의 드로잉을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포르투갈 사회학자 Nuno Higino의 논평도 곁들여 있다. 지금 소개하는 이 두 권의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Siza의 걸작들을 직접 경험하고픈 충동을 일으킬 것이다.

Oscar Niemeyer: Curves of Irreverence : by Styliane Philippou. Yale University Press, 2008

Oscar Niemeyer에 관한 책을 amazon.com에서 검색하게 되면 800개가 넘는 검색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101년이 넘은 이 책, Curves of Irreverence는 여전히 중요한 실습서로 Niemeyer의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을 주내용으로 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프로젝트 역시 기존의 책보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함께 담겨져 있다.

최현아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by Choi, Hyun-ah

저자인 Styliane Philippou는 Brazil의 모더니즘의 근원에 대해 모더니즘이 Niemeyer에 끼친 영향과 Niemeyer이 모더니즘에 끼친 영향,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 Pampulha, Niemeyer의 도시적인 비전과 그것이 어떻게 수도 Brasilia를 번성하게 하였는가와 같은 제목을 가진 각각의 장에서 설명하는데 있어 꽤 성공적이었다.

Philippou는 양질의 이미지에 힘입어 그의 식견, 지식, 그리고, 우아한 그의 글 솜씨로 이 책을 매우 훌륭하게 만들고 있다.

그는 비록 공산주의자였지만 사회개혁의 도구로 예술이나 건축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Le Corbusier는 건축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그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건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삶이다." Niemeyer 건축의 핵심은 아마도 삶에 대한 확실한 즐거움, 그 작품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질적인 요소, 그리고 그만의 장수의 비밀일 것이다.

■ Projects

Inujima Art Project, Japan / Sambuichi Architects

*Sambuichi Architects*는 일본의 외진 섬에 *Inujima Art Project*를 창조해 냄으로써 오래된 정제소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Seto 내륙해의 수많은 섬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는 섬인 Inujima는 한때 초기 일본의 산업에 연료의 공급을 도왔다.

일본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Honshu와 수송하기에 용이할 정도로 가깝고 만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부터는 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먼 곳에 위치한 이 Inujima는 1909년 구리 정제소가 바위가 많은 바닷가에 세워졌을 그 당시 생산성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못되어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으며 80년이 지난 지금 Inujima Art Project가 계획되기 전까지 부서질 위기에 있는 벽돌건물로 남아있었다.

정제소 혹은 Seirenscho 라는 이름과 적절하게도 이 새로운 시설물은 Inujima의 이웃 섬인 Naoshima에 세워진 Ando Dadao의 Chichu



Inujima Art Project

박물관과 같은 방식을 따랐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공장을 예술과 건축의 중심과 같은 전진기지로써 성공적으로 부활시킨 Naoshima Fukutake Art Museum 재단은 또 다른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번에 이 재단은 영구적인 시설을 창조해 내기 위해 개념 건축가인 Yukinori Yanagi와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없는 일본 산업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구조체를 디자인함으로써 생태건축으로 이름이 알려진 Hiroshima출신 건축가인 Hiroshi Sambuichi를 초대하였다.

"나는 일본에 지금까지 이런 전망을 가진 곳이 있으리라고 믿을 수 없었다"고 이 건축가는 Inujima를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었다.

Okayama시 외곽의 Hoden 항에서 올 수 있는 이 섬은 Honshu로 페리를 타로 5분 거리에 있으나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64가구정도의 오래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섬은 정제소의 잔재인 6개의 굴뚝과 이 굴뚝 주위로 흩어진 조적벽의 잔재가 미로같이 남아있다. 비록 오랜 세월이 닳아졌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굳어진 건물의 잔재는 이 섬의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구름과 무성하게 자란 수풀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부분적으로 지면보다 낮은 부분에 지어진 Sambuichi의 건물은 이 드라마틱한 자연의 배경에 반하지 않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확실히 말하자면 건축가의 의도이다. 정련소의 남아있는 잔재들을 정리한 후 Sambuichi는 그의 건물을 가장 높은 굴뚝을 중심으로 디자인 하였다. "나는 항상 대지의 '잠자고 있는 에너지'를 찾는다."고 그는 설명한다. 현재와 같이 앞선 시대에도 이 높은 조적조의 굴뚝은 아래쪽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꼭대기에서 공기를 배출하는 그 본질적인 기능을 하기엔 충분하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한다면 Sambuichi는 어떤 기계적인 장치가 없이도 그의 건물에서 환기가 가능하다. 또한, 태양과 대지의 도움을 받아 그는 자연적으로 가열과

냉각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기의 움직임과 에너지의 전환은 Sambuichi의 T자 형태의 평면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굴뚝의 하부의 개구부와 나란하게 있는 Seirenscho의 눈에 띄지 않는 입구는 바람과 함께 환관 홀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건물 축이 교차하는 곳에 있는 사각의 현관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있는 터널 같은 Earth Gallery와 맞은편에 있는 온실과 같은 Sun Gallery가 결합된다.

이와 수직으로 있는 둥근 천장의 Energy Hall과 태양광으로 가득 채워진 Chimney Hall을 지나서 있는 굴뚝은 자연적으로 조절된 공기를 밖으로 분출한다. Gallery들 사이에 나 있는 내부 문과 창문은 그 흐름을 조절하는 조절판 같은 역할을 한다.

각각의 방은 각각의 열에 대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 다른 재료와 구조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하의 Earth Gallery는 주변의 흙의 무게를 견디고 차가움을 유지하기 위해 두꺼운 스틸 플레이트로 용접되어 싸여있다.

공기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차가운 지면에 오래도록 접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미로같이 복도는 굽어져 있다.

각 구석에 있는 각진 거울은 중앙에 위치한



Inujima Art Project

천창으로부터 내려오는 태양빛을 반사하며 이는 복도의 유일한 조명의 역할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Sun Gallery는 반짝이는 나무 프레임으로 된 차고로 그 바닥과 뒤쪽 벽은 태양열을 흡수하는 karami 벽돌 벽으로 되어 있다.

바다로부터 지켜진 금속 블록은 전련소의 폐물로 만들어졌으나 오늘날 Seirensheo의 기능적이고 소중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가 되었다.

Sambuichi는 그 지방의 재료를 재활용하고 원료로 이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완성된 건물은 인위적인 전력이 따로 필요 없이 운영된다.

둘러싸인 바다에 버려지는 폐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Sambuichi는 거친 잔디와 오염된 공기로부터 해로운 화학성분을 거르기 위해 감귤류의 나무를 심었다.

Seirensheo의 내부에 Yanagi의 설치작품이 안정감 있고 조화롭게 놓여 있다.

Gallery들의 문, 창문, 그리고, 계단은 3차원 콜라주를 연상케 한다. 이곳에서 예술과 건축은 우리에게 느끼게 사는 법을 되뇌게 하고 우리가 완성할 미래처럼 과거의 진가를 인정하게 한다.

Promenade Samuel-de Champlain, Quebec / Daoust Lestage, Williams Asselin Ackaoui, Option Aménagement

3개의 회사, Daoust Lestage, Williams Asselin Ackaoui, Option Aménagement는 Quebec의 Promenade Samuel-de Champlain을 창조해냄으로써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짜 놓는다.

한동안 Quebec시를 한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여행객이나 서부지역에서부터 Saint Lawrence를 따라 차로 이동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변한 직선형의 강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과거 대부분이 석유저장창고가 점점 줄어들어있는 산업적인 풍경을 지녔던 Pont de Québec과 Pont Pierre-Laporte는 이제 보행자,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들로 가득 찬 녹음이 우거진 직선형의 공원이다.

Promenade Samuel-de Champlain구역은 언젠가 Quebec시의 성벽 근처의 해안가가 지 6마일 정도가 연장될 에메랄드 빛 긴 띠의

한 부분을 이룬다.

2008년 6월 완공된 이 첫 단계는 몬트리올 출신의 Daoust Lestage와 Williams Asselin Ackaoui, 그리고, Quebec의 Option Aménagement로 이루어진 각 전문 분야 간 협력 컨소시엄에 의해 디자인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는 아무 것도 없었던 강변에 진입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취한 디자이너들의 첫 행동은 기존의 강가를 둘러싸고 있던 길을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4개의 통로를 몇 개의 중요한 장소에 있는 바닷가 앞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디자이너들은 공공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해안가가 연장됨으로써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었다.

수평한 주차장을 따라 이러한 곡선의 삽입은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를 늦추어 이곳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자연적으로 디자이너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보다 가까운 범위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기를 원했다. 따라서 이 엄청난 50에이커의 땅을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이 산책길을 어떤 이야기의 에피소드처럼 이 구역을 다루기 위해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었고 그들 사이에 숲 공간을 충분히 두었다.

첫 번째 구역은 64피트의 높은 관찰탑이 우뚝 솟아 있는데 이곳이 산책로의 서쪽 끝이다.

거칠게 잘린 히말라야 삼목으로 된 널빤지로 된 이 탐과 다목적의 낮은 파빌리온은 강가로

돌출되어 있다.

Daoust Lestage에 따르면 이는 배의 축조와 나무 수출이 Quebec 경제의 주요 산업이었던 19세기에 뗏목을 이용하여 Saint Lawrence로 통나무를 더미를 실어 나르던 'cageux'를 회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메타포는 관찰 탑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파빌리온의 지붕에도 적용되었다.

이 탐과 파빌리온은 이 산책로의 가장 훌륭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Station des Cageux라 불리우는 근처의 풍경은 나무로 된 데크와 잔디와 풀 무늬가 있는 듯한 콘크리트 표면과 함께 가장 건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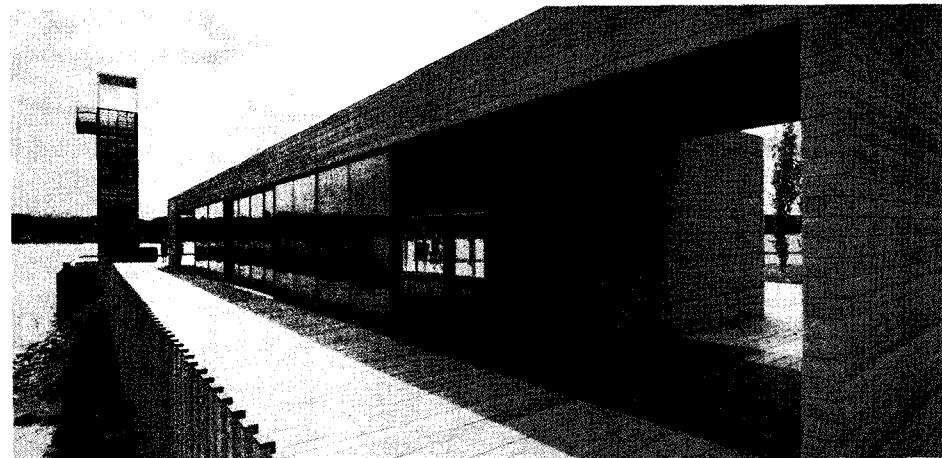
산책로의 동쪽 끝은 약 20에이커 정도의 지역에 물결 모양이 연상되는 정교하게 조각된 잔디로 되어 있다. 이 '녹색의 물결'은 이곳의 방문객에게 이 산책로가 쓰레기 매립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 준다고 Daoust는 이야기한다.

물결치는 형태의 잔디밭을 가로질러 불가의 수직방향에는 각각 강에 대한 다른 방향을 향한 네 개의 좁은 사각형 형태의 정원이 있다.

이 산책로는 기존에 있던 중요한 인공물과도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Station des Cageux로부터 Boisé Tequenonday까지 방문객을 이끌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긴 나무로 된 계단을 디자인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로의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이미 풍부하고 다채로운 이 프로젝트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해준다. 이는 이 대지의 잠재력에 프로젝트의 섬세함이 더해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Promenade Samuel-de Champlain



The Chapel of the Deaconesses of Reuilly, France / Marc Rolinet & Associates

Marc Rolinet는 Versailles에 Chapel of the Deaconesses of Reuilly를 위한 그의 디자인에서 기술과 공예기술을 사용하여 빛으로 가득찬 교회를 실현해 낸다.

프랑스 건축가 Marc Rolinet의 Chapel of the Deaconesses of Reuilly는 순수한 삼각형 형태의 유리외피와 그 내부에 달걀과 같이 둥근 나무로 된 구조체라는 두 개의 순수한 형태를 이용하여 교회의 전통적인 기능을 결합하였다. 2008년 3월에 완성된 이교회는 기차역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용하며 마치 공원과 같은 대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교회의 영지를 포함한 몇 개의 건물, 병원, 컨퍼런스 센터, 그리고 역시, Rolinet이 디자인한 아트 스튜디오와 신입들을 위한 방들이 있는 소규모 복합시설(2001)이 함께 있다.

수년 동안 사회봉사와 교화에 중점을 두어왔던 여전도사들은 모임과 기도를 위해 전 세계로부터 모여들어 이 작은 오래된 교회에서 봉사를 해 왔으며 방문객이 넘쳐나게 되면 상비된 텐트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실제로도 편안하진 않았다하더라도 이 텐트는 새로운 건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9년 태풍에 의해 이 건물이 손상되었을 때 여전도사들은 이때가 보다 크고 영구적인 건물을 만들어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건물 허가는 어땠을까? Versailles에서 유명한 성곽과 그 주변 환경을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 건축가가 있다. 실제로 주변 환경에 이 구역은 전체가 포함되어 있었고 따라서 여전도사들은 낡은 교회를 허물고 새로운 교회를 지어야 한다는 건축가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들의 구원으로 Rolinet는 이 프로젝트는 이미 허가를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이 교회에 대해 나는 두 가지 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Paris와 Geneva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Rolinet는 회상한다. “하나는 강하고 심플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교회 주변의 건물로부터 실제 교회를 분리해 낼 수 있는 두 번째 외피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그의 해결책은 귀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가벼운 유리 외피를 사



The Chapel of the Deaconesses of Reuilly

용하는 것이었다.

나무로 된 얇은 널빤지와 투명함이 사라지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근처에 위치한 기차역과 마주한 파사드를 따라 금속그물로 짜여진 패널을 가지고 디자인하였다.

이 외부의 유리창으로 된 층은 역시 소음을 최소화해준다.

대지의 고르지 못한 지세를 따라 자연현상으로서의 풍경과 사람이 만들어 낸 교회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기 위하여 건축가는 테라스들을 만들어 넣어 교회는 언덕에 편안하게 안착된 듯이 자리 잡고 있다. Rolinet는 건물 뒤의 경사면을 깎아 태양빛이 흘러들어오게 하였으며 또한 비상시에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이 건물의 재료와 비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나는 파사드와 지붕에 얇은 유리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수녀들은 일 년 내내 내부가 따뜻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유리를 제작했다.”고 Rolinet는 설명한다.

따스하고 누에고치같이 생긴 성당은 기계적인 기술과 수공예 기술 사이의 완전한 균형에 의해 세워졌다. 손으로 만들어진 나무로 된 달걀 형태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제작되었다. 바닥은 심플한 형태의 제단을 향해 부드럽게 경사져 있다.

고정된 신도들의 좌석 대신 건축가는 여전도사들을 위해 몇 개의 튼튼한 의자, 집회를 위한

접이식 의자, 곡선형태의 벽을 따라 긴 벤치들을 만들어 놓았다.

좌석을 형식에 얽매이지않고 배치함으로써 이 공간은 보다 친근감 있는 공간이 되었다. 여과되어 내부공간으로 들어오는 태양광 역시 매우 훌륭하다.

이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항상 변화하여 바닥에 움직이는 패턴을 만들어 준다.

“역사를 통해 교회건물은 교회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해 변형되어 왔다. 여기 이곳은 건물자체가 창문인 셈이다.”고 Rolinet는 강조한다. ■



The Chapel of the Deaconesses of Reuilly